

# 《一片情》이 반영하는 晚明 남성의 性 콤플렉스

全恩淑\*

##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호색한 부녀자 형상으로 본 독자층 남성의 性 콤플렉스
3. 간음한 남성 형상이 반영하는 사회문제와 性 콤플렉스
4. 외도한 아내를 둔 남편 형상과 그들의 性 콤플렉스
5.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晚明은 상업경제 발달과 도시문화의 변영으로 금전만능주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사치와 방탕 심지어는 황음무도함이 극성한 시대로 여겨져 왔다. 특히, 사회 상층계층부터 일기 시작한 성 탐닉 문화와 방탕함은 사회 중하층 계층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시 이러한 사회풍조는 각종 문헌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문인 張瀚은 “세속 풍속은 종욕을 중시하고, 사람들은 방탕함을 쾌락으로 삼는다”<sup>1)</sup>라는 말로 당시 사회풍조를 설명했다. 晚明의 이러한 황음무도한 성 탐닉문화는 심지어 성 기형문화를 창출해 내기에 이르는데. 마치 張岱가 묘사했던 張東谷의 기호(嗜好) “고기라면 맛이 있든 없든 무조건 먹는다”<sup>2)</sup>라는 말과 같이, 당시 남성들의 정욕 발설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

\* 台灣 國立中央大學 中文所 博士研究生

1) “世俗以縱欲爲尙, 人情以放蕩爲快”張瀚, 《松窗夢語》, (上海: 古籍, 1986), 123쪽.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탐욕의 대상이 되었다.<sup>3)</sup> 또한, 상인과 문인에서부터 어리석은 백성들까지도 그들의 성 탐닉을 위해 큰 돈을 쓰면서도 흔쾌히 여겼으며 심지어는 목숨이 끊어져도 후회하지 않았다.<sup>4)</sup> 이러한 사회풍조의 영향으로 性관련 산업과 상품들이 공전의 성황을 이루게 된다. 특히 매춘업이 흥성하게 되고 이에 종사하는 부녀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春畫, 春藥, 房中書, 각종 정보조기구(淫具) 및 색정소설 등 性 관련 상품들이 크게 성행하게 된다.

상술한 각종 문헌들과 性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본 晚明사회는 마치 사회 전체가 거대한 性 향락 연회장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연 당시 사회 모든 계층 남성들이 다 이 性 향락연회에 동참하고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필자는 이 문제를 당시 淫정소설 《일편정》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편정》은 1645년 경<sup>5)</sup> 완성된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총 14회로 구성된 淫정소설류(艷情小說類)이다. 매 회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모두 부녀자의 외도를 주요 제재로 삼고 있는 畵니버스 소설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노골적인 性 묘사로 淸代 세 차례<sup>6)</sup>나 금서로 지정되기도 한 소설이다.

이러한 사회 환경 중에서 탄생한 《일편정》은 비록 淫정소설 혹은 색정소설로서의 오명을 쓰고 금서로 지정 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왔지만 晚明 중하층 계층

2) “肉只要吃，不管好吃不好吃。”

張岱，〈張東谷好酒〉，《陶庵夢憶》，(台北土城：頂淵，2004)，73쪽.

3) 張岱，《陶庵夢憶》〈龍山放燈〉 편에 보면, “시정잡배 하나가 등불놀이를 하러 나온 인파 중에 미소년을 발견하고 유인하여 밤새 술을 마시게 하고 희롱하다가 소년의 옷을 벗기고 일을 벌이려 하는데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였다.”라는 대목이 있다.

“有美少年來狎某童，剪燭滯酒，嫖褻非理，解襦乃女子也” 주2, 71쪽.

4) “商賈負販，縉紳之士無知愚小，大銖錙而積之，肢體而委之，甘心效其力，沒首而不悔” 李詡，〈戒宿倡酬酒二文〉，《戒庵老人漫筆》，(北京：中華書局，1982，338쪽.

5) 《일편정》은 현재 두 개의 板本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일본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中央美術學院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에 소장된 것은 총 14회로, 淸順治刊本으로 추정하고 있고 나머지 한 부는 총9회로 구성된 選本이다. 李忠明, 《17世紀中國通俗小說編年史》，(合肥：安徽大學出版，2003)에서는 黃霖, 〈試論一片情〉, (《社會科學戰線》, 1993년 제 2기) 를 근거로 順治2년 (1645) 년경을 成書시기로 본다.

6) 淸 道光18年 (1838) 처음 금서로 지정된 것을 필두로, 道光24年 (1844), 同治7年 (1868) 총 세 차례 금서로 지정되었다. 歐陽建, 《古代小說禁書漫話》，(瀋陽：遼寧出版社，2001) .

소시민들의 혼인문제와 성 문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일편정》 내용 대부분 호색 음탕한 부인과 간음한 남자 그리고 아내가 외도를 한 남편 이 세 주인공을 위주로 전반적 내용이 진행된다. 소설 중 대부분 남편은 모두 부인이 탄 남자와 정분이 나서 피해자의 신분으로 그들을 응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이나 간음한 남자나 모두 소설 중 암암리에 성 문제에 있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마음속의 응어리와 불안감 등 심리적 초조함을 표출해낸다. 즉, 性문제에 있어 심각한 콤플렉스 (complex) 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배급주의 가치관의 팽배와 성 문화에 있어 방종함을 넘어 기형적인 문화를 창출해 내고 매춘업 및 각종 성 관련 상품들이 범람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특이하게 보여 지는 현상이며 주목할 가치가 있는 사회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편정》을 통해 晚明 봉건계급주의 사회의 각 분야에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던 사회주류층이 아닌 중하층 소시민들의 성 문제와 그를 둘러싼 각종 사회문제 등을 분석하고 晚明 성 문화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2. 호색한 부녀자 형상이 반영하는 독자층 남성의 성 콤플렉스

明代는 여성들이 수절하거나 순절하는 안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중국사회 정절관념 변화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비록 1644년 만청(滿淸)이 중원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전쟁과 학살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많은 수절녀와 순절녀들이 일시적으로 불어나 수적인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다

7)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콤플렉스는 일반적으로 의식이 억눌러지고 이 상태가 지속되어지는 무의식중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콤플렉스는 대체로 장기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거운 심리적 압박감과 감정상의 울결 현상을 표출해 내는 일종의 정신적, 사상적, 감정방면의 풀리지 않는 매듭이다.

른 시기에 비해 부녀자들의 정절을 강요하는 사회풍조는 특히 광적으로 미화되었다.

명 초 이래 이러한 정절관념은 정치적으로 기문의 영광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이점<sup>8)</sup>이 따름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정절풍조가 흥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수절하고 순절하는 부녀자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명 말에 이르러서는 관방에서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다.

田汝璈은 이러한 명말 부녀자들의 정절관념이 강화된 원인이 과거에 낙방한 문인들의 수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과거에 연이어 실패한 문인들은 부녀자들에게 광적인 정도의 정절관념을 강요함으로써 그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발설하고자 했다.<sup>9)</sup>

《일편정》 소설배경은 대부분 명대 사회전반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강남일대이다. 당시 강남지역은 문인들이 가장 밀집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과거급제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반면 과거에 낙방 좌절한 문인들 또한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田汝璈의 견해에 의한다면, 과거에 연이어 실패로 좌절감을 느끼던 문인학자들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은 부녀자들의 정절관념이 특히 강화된 지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편정》 중 부녀자들의 형상은 대부분 호색 음탕하고 성 문제에 있어서 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 목말라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 제1회중의 여주인공 新玉은 시집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늙은 남편과의 성생활의 불만족으로 춘심이 발동하고 정욕이 불같이 일어 다른 남자를 찾게 된다. 제4회의 휘주의 정성성은 혼인을 하고 1년 후 약재를 팔기위해 집을 떠나 행상을 하게 된다. 이때 다른 지방을 떠돌던 정성성은 매일같이 기루를 드나들며 행상을 위해 가져온 돈을 탕진하고 결국은 삼촌의 권고로 그 지방의 양가규수인 赤大姑를 첩으로 들인다. 그러나 赤大姑는 시집올 때 이미 처녀가 아니었으며 성

8) 이는 明太祖의 貞節녀들을 장려하려던 노력으로, 명 초 법전에

“삼십 세 이전에 남편이 죽어 수절을 하고 오십이 넘어서도 재혼하지 않는 민간의 과부들에게 폐방을 세우고 그 집안의 差役을 면제한다.”

“民間寡婦 三十以前夫亡守志 五十以後不改節者 施表門閭 除免本家差役”

《明會典》, 卷二十〈戶部七·賦役〉, (上海: 上海古籍, 1990) 534쪽.

9) 田汝璈,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서울: 예문서원, 1997.) 참조.

생활에서의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태도는 정성성을 놀라게 만든다. 특히, 성교 중 과도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것에 놀란 정성성은 그 이유를 묻자, 赤大姑는 이는 남쪽 지방과는 다른 그 지방의 특색이며 소리를 지르지 않고 무슨 재미가 있냐고 오히려 반문한다.<sup>10)</sup> 이와 같은 호색 음탕한 부녀자 형상은 소설 전편에 걸쳐 일관적이다. 이러한 부녀자형상은 우리가 주지하는 명대 전통예교 중의 열부 질녀 등의 형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劉靜怡는 《일편정》 중 부녀자들의 이러한 형상과 외도의 일탈행위를 보이는 것은 전통혼인제도의 폐단이 만들어낸 혼인의 불행으로 여성들이 성욕 해방을 위한 출구를 찾는 주요한 예로 이는 그녀들의 본성이 음탕하거나 호색한 것이 아니라 예교의 억압과 생리적인 욕구 사이에서 부득이하게 표출되는 행위라고 한다.

11) 그러나 소설 중 부녀자들의 형상묘사에서 근본적으로 전통예교의 속박과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나서 일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상황설정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소설중의 부녀자들은 단지 그녀들의 성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남성상대를 좇을 뿐이다. 이러한 부녀자들의 형상은 염정류 소설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인물묘사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과장되게 표현한 데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당시 사회 하층신분의 부녀자들 생활상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비록 晚明 시기는 전통예교의 속박이 비교적 엄격하고 부녀자들은 그 영향 속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확연히 달랐다. 우선 정절관념에 있어서도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다른 시각을 보인다. 대부분 수절이나 순절하는 부녀자들은 사회 중상계층 이상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 주류계층의 부녀자들이 대부분이다. 기타 하층계층의 부녀자들은 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양극화 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일편정》 중의 부녀자들은 대부분 사회 비 주류층이다. 대부분이 농민이거나 재단사 혹은 이발사, 집을 봐주고 생계를 이어가는 장님의 아내 등이다. 이들의

10) “這是我們這邊的鄉風，不像你們南邊人，不出聲，有甚麼情趣?” 《一片情》第四回.

11) 劉靜怡, 《亂情中的人情: 一片情研究》, (臺灣國立中央大學, 中文所, 碩士論文, 2001), 75쪽.

생활은 분명 기타 부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조관념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는 명말 동 시대 기타 작품들을 통해서 당시 하층계층 부녀자들의 정조관념을 엿볼 수 있다. 즉, 명말 통속소설 중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金瓶梅》, 《杜騙新書》, 《三言》, 《二拍》 등 소설 중 표출해 내는 명말 부녀자들, 특히 도시의 일반 부녀자들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명대 극도로 강요되던 정절관념과 확연히 차별화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杜騙新書》의 〈哄嬌成姦騙油肉〉 중 동서지간의 두 여자는 미색으로 고기를 파는 백정을 유혹해 간음하고 돼지고기를 얻은 후 술과 그 고기를 먹으면서 석씨가 하는 말이 “정말 하루 부끄러운지를 잊어버리면 삼 일은 배부를 수 있다”<sup>12)</sup>라고 하자, 큰동서 좌씨는 한 술 더 떠서 “그게 아니라, 반시간 즐기고 한 달간 술과 고기를 먹는다”<sup>13)</sup>라고 한다. 이러한 부녀자들의 모습에서도 전통예교의 속박과 정조관념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拍案驚奇》 중에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徽商 鄭朝奉은 작은 술집을 하는 李方哥의 아내 진씨가 맘에 들어 돈을 들고 가서 李方哥에게 말하기를 “내가 (李方哥의 아내 진씨) 를 빌려 쓰고 다시 돌려주겠다”<sup>14)</sup>라고 하면서 현금을 바로 주겠으니 원하면 성사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됐다고 말한다. 이 때 李方哥는 鄭朝奉이 놓고 간 돈을 보면서 아내와 상의를 한다. 李方哥가 말하기를,

“간만에 재물운이 굴러 들어왔는데, 잠깐의 수치만 참으면 일생 동안 쓰고도 남는다. 지금 어쨌든 망할 놈의 세상, 우리는 정절을 지켜야 할 문벌세가가 아니고, 정절을 지킨다 해도 아무도 너를 위해 牌坊을 세워주지도 않는다  
……”<sup>15)</sup>

이 말을 들은 아내 진씨 또한 대단한 일도 아니라 여기고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한다. “정절을 지킨다 해도 아무도 너를 위해 牌坊을 세워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12) “眞是一日不識羞, 三日吃飽飯”《杜騙新書》, (上海: 古籍, 1990) 534쪽.

13) “不是如次說, 是半時得快活, 一月吃酒肉”, 주12.

14) “我借來用用, 仍舊還你”《二刻拍案驚奇》 권28.

15) “李方哥說: 難得財主家倒了運, 我們拼忍着一時羞恥, 一生受用不盡了, 而今總是混帳的世界, 我們又不是甚麼闊闊人家就守着清白, 也沒人來替你造牌坊.”《二刻拍案驚奇》 권28.

李方哥가 아내를 설득하는 이론근거가 된다. 그는 결코 정조를 일종의 도덕규범으로 보지 않으며, 정조를 지키는 것이 아무런 경제적 이점이 없을 뿐더러 차라리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편이 훨씬 값어치가 있다고 여긴다. 이는 곧 당시 부녀자들의 정조관념이 비록 통치개념으로 중요한 비중을 지니고 있었지만, 실제 생활상 하층계층의 부녀자, 특히 경제가 발달한 도시 하층 부녀자들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비교적 약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전혀 전통예교의 속박을 받지 않는 경향도 보이기도 한다. 《일편정》에서 보이고 있는 부녀자들의 호색 음탕한 형상들 역시 이러한 부분적인 도시 하층부녀자들의 정조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명말 강남지역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시문화가 발달함으로 인한 특수적 상황으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개방적인 원인도 소설중의 淫婦와 같은 부녀자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한 이러한 부녀자 형상은 중국 남성들의 성에 대한 억눌림과 그 반동심리의 반영이기도 하다.

李明君는 명 중엽이후 《일편정》 등과 같은 염정류 소설들의 주요 독자층은 문인계층이며 일반 시민 계층들에게까지 널리 향유되고 읽혔던 것은 청대에 들어선 이후의 일로 보고 있다.<sup>16)</sup> 특히, 만청(滿清) 정부가 중원을 침입하고 전반적인 사회가 안정되기까지 清初 약 30여년간,<sup>17)</sup> 강남지역은 전쟁이 남긴 휴유증과 민족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적어도 청초까지는 이러한 소설을 향유할 수 있었던 독자층은 그나마 여유가 있던 식자층 문인이었을 것 이다. 이러한 각도로 분석한다면, 당시 부녀자들은 독자층 문인학자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염무의 통계에 따르면 명말 생원의 수가 50만 명<sup>18)</sup>이 넘었다고 하는데, 여기

16) 李明君, 《盡君與放縱; 明清豔情小說文化研究》, (濟南: 齊魯書社, 2005.), 50쪽.

17) 1644년 滿清이 중원을 침입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학살과 전쟁의 화마, 민족 간의 갈등 등의 원인으로 인해, 청 초 약 30여 년간은 경제, 문화, 정치 등 각 방면에 있어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다. 특히, 전쟁 직후 그 피해가 가장 컸던 강남지역은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침체기를 맞는다. 청대 사회 전반적 경제 문화가 안정되기 시작한 것은 청 조정의 남방의 반청세력을 진압하기 시작한 三藩之亂 (1673-1681) 이후의 일이다.

18) “舍天下之生員, 縣以三百計, 不下五十萬人.” 顧炎武, 《顧亭林遺書十種·生員論上》, (台北: 進學, 1969.), 799쪽.

에 개인이나 가족 書院 등 출신의 학자 수까지 포함한다면, 문인학자들이 100만 명<sup>19)</sup>을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하던 시민계층이었는데 당시 명말 인구가 1억 정도를 기준으로 도시인구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정도가 지식계층의 학자들로 추산이 된다. 명 중엽이후 점차적으로 누적된 학자들의 수는 명말에 이르러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과거제의 병폐와 모순점들은 이들의 사회출로와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과거를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상인의 길로 들어서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평생 과거로의 목표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로 인한 그들의 생활은 일반 하층민보다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출로가 막혀 버린 많은 문인학자들이 지식유민(知識游民)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편정》중 유일한 학자출신인 수재 諫天成이 바로 이러한 경우다. 제13회 諫天成은 혼전에 간음을 하여 愛姑를 아내로 맞게 되는데 가난한 수재 출신이라 혼인 비용도 친구의 도움으로 마련해야 했을 뿐더러 혼인을 해서도 가난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혼인을 한 사실을 모르는 권세 있는 안찰사가 諫天成을 자신의 사위로 맞기를 원한다. 이때, 생계를 이어가는데 위협을 느낀 수재 諫天成은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다시 권세가에 사위로 장가를 가게 된다. 이는 당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다수의 문인학자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곤궁했는지, 그 절박함이 당시 도덕과 윤리가치관까지도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다. 그의 아내 愛姑가 말하기를,

“지금 가난함이 극에 달했고, 아버지도 이제 늙어서 우리를 얼마나 도와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장례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다 하고 회신을 써서 보내고 가서 이 혼례식을 치르세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당신을 기다릴 테니 만약 맘이 있으면 돈이나 좀 부쳐주세요 더 마음이 있다면 가끔 와서 들리시면 둘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가난을 견딜 수도 없고 이 기회를 놓치면 도리어 좋지 않습니다”<sup>20)</sup>

19) 方志遠, 《明代城市與市民文學》, (北京: 中華書局, 2004.), 92쪽.

20) “如今可謂窮之極矣! 我爹爹老年, 幫得多少? 不如將計就計, 只說不會有親, 寫封回書, 竟去成了這

명청시대 과거에 낙방 좌절한 문인학자들의 생활상의 곤란과 초조함은 각종 문헌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가난한 秀才생활은 하루 종일 荒年이다.”<sup>21)</sup>

“오십여 년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秀才로 지내다, 고향에 돌아갈 때도 여전히 배움을 입고 돌아간다.”<sup>22)</sup>

실지로, 명청대 관리의 녹봉이 극히 적었으므로 설사 과거에 급제를 하고 관리가 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부를 누릴 수 없었고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경제적 출로를 모색해야만 했다. 명말 소설 《금병매》 제 36회에도 보면,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고 관리가 된 蔡蘊 또한 혼인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조차 없어 서문경에게 돈을 빌리는 장면이 있다. 이처럼 과거에 급제를 하고 득의양양했던 이들도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못했으니, 연이은 과거 실패에 출로가 막혀 버린 당시 수많은 문인학자들의 경제사정과 그들의 혼인문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문인학자들의 연이은 과거 실패로 인한 초조함과 좌절감 등은 청대소설 《유림외사》를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유림외사》 중의 유명한 인물 중 周進은 육십이 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괴로워하다 미쳐버리고, 范進 또한 오십이 넘어서야 과거에 급제하게 된다. 周進은 젊어서부터 나이 육십에 이르기까지 줄곧 과거에 응시하고 급제하기만을 바랐지만 딱히 다른 재주가 없어 가정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얼굴에 수업이 가득한 나이에든 과거 자격 중 제일 낮은 童生에 머무르고, 이로 인해 늘 다른 사람들로 부터 냉소를 받는다. 이와 같이 당시 평생 과거에 매진하는 가난한 문인학자들이 부지기수였으며, 대다수의 과거에 실패 좌절한 학자들은 전통예교의 이상도덕으로 부녀자들에게 정절관념을 극도로 강요함으로 그들의 좌절과 초조함 등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

頭親事。我仍在父親家裡守你，你若有心，寄些盤纏與我，再有心托故走來望我一望，可不兩全其美？若爲我所礙，又救不得飢寒，錯了機會，反爲不妙。”《일편정》 제13회.

21) “窮秀才生活，整日荒年。”(明) 陳繼儒，《小窗幽記》，(台北古城：頂淵，2001)，146쪽.

22) “五十餘年做秀才，故鄉依舊布衣回。”(明) 葉盛，《水東日記·尹鳳岐時調時事》，(北京：中華書局，2001)，15쪽.

하는 방편으로 삼았다. 이렇듯 그들이 정신적으로 팽팽한 압박감과 좌절감을 절너나 열너를 강요함으로써 발설했다면, 그들의 생리적 본능인 정욕 문제는 어떻게 해소했을까?

《일편정》의 작가는 序에서 이 작품의 창작동기가 세상 사람들의 정욕에 대한 방종을 깨우치게 하고 권계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설 중 과도하고 노골적인 성 묘사와 인물들의 色情狂적인 형상묘사의 집필방식은 그의 소설 창작 동기를 무색하게 만든다. 즉, 작품의 창작동기와 집필방식에 있어 큰 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모순이 바로 당시 문인학자들이 전통예교의 수호자로서 정신적 이상 세계와 본능적 정욕의 갈등사이에서 배회, 방황하며 느끼던 성 문제에 있어서의 콤플렉스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부분이라고 본다.

당시 아내를 얻는다는 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특히, 과거에 실패하고 가진 것이 없었던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치 《유림외사》의 주인공들과 같이 나이 50~60이 되도록 줄곧 과거준비에만 몰두하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근본적으로 아내를 얻을 만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 비록 당시 매춘업이 흥성했으나 연이은 과거실패에 특별한 다른 재주가 없었던 대부분의 학자들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잇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기루를 기웃거리려는 것조차 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사치였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탄생한 《일편정》과 같은 염정류 소설 중 대부분의 호색 음탕한 부녀자 형상은 바로 성에 있어서 심각한 억눌림에 있던 학자들의 가장 원시적인 성 본능을 상징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작용 (projection) 23)의 개념으로 이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의 원시 본능인 성에 대한 욕망이 만족을 얻지 못하거나 사회 가치체제나 도덕 윤리 관념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자신들의 본능적 성 충동을 음탕 음란한 부녀자들과 그 부녀자들이 간음하는 것으로 전이시킴으로써 자신의 성 억눌림

23) 투사작용 (projection) 은 그 의미가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심리학파에서는 투사 (投射) 를 일종의 심리적 방어기제로 본다. 프로이드는 자아가 충동 및 욕망이 만족을 얻지 못했을 경우나 압박을 받을 때 본인의 충동이나 압박을 받는 상태를 그대로 다른 사람이나 주변사물에 轉移시키려고 하는 심리적 작용이 있는데, 또한 본인의 본능이나 충동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 시키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즉 자아방어체제의 한 방편인 것이다. 《心理學大辭典》, (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 1989), 681쪽 投射作用 편 참조.

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들의 심리적 방어 작용의 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예교가 사회 통치개념으로 부녀자들을 갈수록 수절과 순절 등으로 목석같은 존재로 몰아갈 때,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성 기갈에 허덕이는 듯한 음란한 부녀자들의 형상과 난잡한 간음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들의 전통예교의 수호자라는 가면 뒤의 본능적 성 충동과 성에 대한 억눌림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 3. 간음한 남성 형상이 반영하는 사회문제와 성 콤플렉스

「간음」이란 말은, 넓은 의미로는 비합법적인 성 관계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미혼간음과 기혼간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미혼남녀들의 간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 즉,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잘 반영하는 통속 화본소설 《삼언》, 《이박》 등에서 보이는 미혼남녀들의 간음 사건들은 대부분 “한 침대의 이불이 각종 수치심을 일으킨 일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다”<sup>24)</sup>는 관념으로 미혼남녀들의 비합법적 성 관계를 혼인이라는 사회적 체제로 마무리 시켜버림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무마해 버린다. 그러나 남성이 그들 자신의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간음한 여성이 기혼이었을 경우에는 사회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 받았다.

《일편정》 중 유일하게 간음을 하고서도 원만한 사건 결미를 이끌어 낸 것은 제 13회 가난한 수재 출신 謀天成 편을 들 수 있는데, 이 또한 그들이 미혼남녀였으므로 둘이 혼인을 함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수치심과 결함을 마무리 짓는다. 그러나 이 외 대부분의 남성들은 다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들과 간음을 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우리는 명칭 통속소설을 접하면서 대부분 도덕적인 관점으로 혹은 그들을 응징하고 권계하는 각도로 죄인이나 호색한으로 몰았을

24) “一床錦被可遮蓋過種種羞恥之事.” 《拍案驚奇》卷29.

뿐만, 그들의 당시 사회지위나 그들이 도덕 윤리적 사회통념을 깨고 목숨을 담보로 까지 간음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의 사회문제와 성 문제에 있어서 느껴야 했던 심적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등한시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간음 행위나 동성애를 즐기는 등의 행동에서 우리는 당시 중하층계층 남성들이 혼인 성 문제에 있어 심각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편정》 중 간음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재봉사, 이발사, 배우 (戲子) , 승려, 무위도식하며 떠돌던 젊은이들 (流浪子弟) 등 모두 사회 중하층계층의 남성들이다. 이들은 비록 사회 비 주류층이지만 당시 도시인구 중 수적으로 큰 비중을 지닌 계층이기도 했다.

소설 중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아내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간음한 부녀자들의 연령이 높은 낮은 남편이 있는 부녀자이건 없는 부녀자이건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동성애를 즐기기도 한다. 제 3회, 승려 六습은 절에서 남 동성애자를 데리고 산다. 제 7회 사기꾼 건달 活無常 또한 동성애를 좋아하며, 제 11회 아내를 무서워하는 羊車 또한 남 동성애자를 두고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좋아한 부류가 아니다. 모두 어떠한 원인이 존재한다. 제 3회 의 자의로 스님이 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 억지로 출가를 하게 된 승려 六습, 돈이 없어 아내를 얻지 못한 건달 活無常, 아내에게 늘 맞고 살며 무서워하는 羊車, 혹은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며 아내의 노예와 같이 사는 등 그들은 정욕을 발설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두 사회적 환경의 장애에 부딪힌 사람들이다.

동시대의 기타 소설 중에서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혼인 성 생활을 즐기는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일반 서민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三言》이나 《二拍》 중에서도 간음 이야기나 남 동성애 소재의 내용 등은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이러한 혼인문제나 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일편정》의 곳곳에서 간음하는 남성들을 막기 위한 작가의 권고를 볼 수 있다. 제7회에서 작가는,

“치나 딸은 단연코 막고 금지해야 한다. 절에 가서 향을 피우거나 밖에 돌아다니게 해서도 안 되며, 밖으로 나갔다가 사람들 눈에 거슬려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만약 돌아다니며 자색을 탐내는 이를 만나게 되면 돌이 몰래 눈이 맞아 (치나 딸) 을 빼겨 도적맞기도 한다.”<sup>25)</sup>

소설 중 작가는 이러한 간음을 하거나 동성애를 즐기는 부류의 남성들을 모두 성 문제에 있어 기갈을 느끼는, 혹은 호색한으로 몰고 결국은 죽음으로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해 낸다. 비록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황음무도하고 방탕했다고는 하나 그들이 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해야만 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필자는 이를 농촌에서 도시로 대량 유입된 유민(無業游民)들의 증가와 이에 반해 당시 유행하던 여영아 살해현상이 야기한 남녀성비율의 심각한 불균형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명 중엽이후 상업경제가 발달함과 도시문화의 번영은 대량의 농민들이 그들의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들어가 생계를 찾게 만들었다. 따라서 당시 도시에는 특정 직업(農工商)을 가진 이가 아닌, 소위 말하는 무위도식하는 유민(無業游民) 및 시정잡배(市井無賴) 등과 같은 부류들이 대량 증가하게 된다. 이는 명말 謝肇淛의 《五雜俎》에 잘 묘사되어 있다.

옛날에는 인구가 많지 않아 농부 하나가 百畝를 경작해야 했으므로 무위도식하는 백성이 없었으나, 오늘날 인구가 전 3대보다 열 배는 많아져서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京師의 환관이나 궁녀 창녀 승려들만의 수도 십만 명이 넘는다. 기 타 다른 성에는 비록 비구니 암자가 없다 해도 떠돌아다니는 승려들과 도사들이 줄을 잇고 도시에는 창녀들이 가득하다. 부잣집의 하인들과 하녀들은 마치 왕실의 하인들 수만큼 많고, 산속에 돌아다니는 말들의 수가 평민들보다 더 많다.”<sup>26)</sup>

25) “人家妻女，斷要防閑，不許她燒香拜佛，玩水游山。莫說出去招人眼債，惹起是非，倘若遇著一個游花，貪你姿色，暗裡通約，忙中放箭，常被人竊去。”《一片情》제 7회.

26) “古者生齒不繁，故一夫百畝。民無游食，今之人視三代當多十倍，故游食者衆。姑勿論其它，如京師閹豎、宮女、娼妓、僧道，合之已不啻十萬人矣。其它藩省雖無婦寺，而緇黃游方，接武遠近；粉黛倚門，充牣城市。巨室之蒼頭使女，似於王公；綠林之亡命巨魁，多於平民。”  
(明) 謝肇淛，《五雜俎·卷之八》，(瀋陽：遼寧教育出版社，2001)，163쪽.

상술한 바와 같이, 특별한 직업 (農工商) 이 아닌 환관이나 승려, 도사, 창녀의 수만 해도 십만 명이 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위도식하며 떠도는 유민 (游民) 및 시정잡배 (市井無賴) 의 수를 짐작할 수 있다.

수적으로 급증하게 된 남성들과는 달리, 당시 중국사회에 유행하던 여 영아 살해 현상은 심각한 남녀 성 비율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된다. 명대 강남지역을 포함한 복건성 지방에는 여 영아 살해현상이 특히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었는데 그에 따른 남녀 성 비율의 심각한 불균형은 관방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었으나 명말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1629년 崇禎황제는 다시 엄중하게 여 영아 살해 악습을 범으로 금하는 명을 내리게 되는데 이 또한 큰 변화는 보지 못했다.<sup>27)</sup> 명말 소설가 풍몽룡 (1574-1646) 도 壽寧 縣수를 맡고 있을 때, 당시 사회의 여 영아 살해 등의 악습에 관한 생각을 토로하고 이를 금하려는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는 말하기를,

“남아 여아 모두 열 달 힘들게 고생해서 낳은 혈육이다, 어찌 물에 빠뜨려 죽일 수가 있는가?”<sup>28)</sup>

이러한 심각한 여성 수의 결핍은 서민들의 혼인문제에까지 그 문제의 심각성을 확산 과급시키게 되는데, 부녀자의 수적인 결핍과 그에 따른 희소성의 가치로 소시민들이 혼인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편정》에서 간음을 하거나 동성애를 즐기는 등 비 정상적인 혼인 성 생활을 통해서 정욕을 해소하려는 남성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이 기술공이나 이발사 혹은 점을 쳐서 생계를 이어가는 등 당시 도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소시민들이다.

당시 건축 일을 하던 노동자의 하루 수입이 은자 5分<sup>29)</sup>, 湖州의 뽕잎을 채취하던 단기 노동자의 하루 수입이 은자 2分<sup>30)</sup>, 萬曆17년 (1589) 嘉興 石門鎮의 기름

27) 徐適端編, 《明實錄類纂·婦女史料卷》, (武漢: 武漢出版社, 1995), 1071쪽.

28) “一般十月懷胎, 吃盡辛苦, 不論男女, 總是骨血, 何忍淹棄?”, 《禁溺女告示》, 《壽寧待志·卷上·風俗》, (福建人民出版社, 1983), 52쪽.

29) “你哥率領著五十名做工, 你到那裡只抬幾筐土兒就是了, 也算你一工, 討五分銀子。” 《金瓶梅》 제96회.

《一片情》이 반영하는 晚明 남성의 性 콤플렉스 353

을 짜던 노동자의 하루 수입이 은자 9分<sup>31)</sup> 정도이었으므로 이들의 일 년 수입은 대략 은자 1냥에서 3냥 정도이다. 이들의 경제력으로 미루어 보아 《일편정》의 대부분 남성들의 경제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나이 11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여자 아이의 몸값이 적어도 5냥~6냥<sup>32)</sup> 정도였으므로 도시 소시민 남성들의 경제력과 부녀자의 상품가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시 부녀자들의 상품가치로의 정도는 고염무의 《明季實錄》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辰州의 풍속에는 대부분 여 영아를 물에 빠뜨려 죽임으로 부녀자의 값이 비싸, 재혼을 하려고 해도 삼십 여 냥이 있어야 한다……심지어 남자 나이 삼사십이 되어서야 여자 육칠십 세와 맺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늙어 죽을 때까지 혼인을 못하고 죽는 남자도 비밀비재하다.”<sup>33)</sup>

상술한 혼인 비용 삼십 여 냥은 당시 물가로 봤을 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명말 물가가치로 30~40냥 정도면 일반 서민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동안의 수입에 해당하는 정도였으며, 서민들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정도, 100여 냥이면 당시 중상층 이상이 살 만한 주택을 살 정도의 물가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시 혼인 비용과 부녀자들의 상품가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sup>34)</sup>

이러한 극심한 여성 수의 결핍과 그 상품가치는 결코 辰州에서의 일 만은 아니었다. 따라서 《일편정》 중의 간음하는 남성들 또한 이런 사회적 환경과 당시 부녀자들의 값비쌈으로 인해 부득이한 행위였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동성애를 즐기던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지로, 명청시대 각종 문헌들에서 동성애에 관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 볼 수

30) 劉精誠·李祖德, 《中國貨幣史》, (台北: 文津, 1995), 289-290쪽.

31) 주30 참조.

32) 《金瓶梅》 제24, 60, 95회 참조.

33) “辰俗生女多溺死故女甚貴再婚亦須三十餘金……甚有男子僅三四十而女人已六七十者 其老死不得娶者又比比也”, 顧炎武, 《明季實錄·附錄蒼梧兄酉陽雜筆》, (台北: 大中國, 1968), 169쪽.

34) 《金瓶梅》 제 56회에, “두 식구가 살만 한 집은 방 4칸이면 적당한데 30~40냥이면 충분하다”. 제39회에서 서문경이 왕육아를 위해 사준 집이 120냥이었으며, 이는 “도시에서 중등이상의 주택이다”라는 대목이 있다. 蔡國梁, 〈《金瓶梅》反映的明後期的城市經濟生活〉, 《金瓶梅研究》, (復旦大學出版社, 1984), 320쪽 物價편 참조.

있다. 당시 남 동성애는 사회 상층계층부터 하층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유행했었지만, 상층계층과 하층계층이 즐기던 동성애는 기본적인 성질에 있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또한 중국 고대 성 문화에 있어서 동성애는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의 개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동성애는 물론 선천적인 요소로 동성애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욕주의가 흥하고 일부다처제와 다량의 기녀들과 접촉할 수 있던 사회 상층계층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異性愛와의 단조로움과 권태를 보충하고 자극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한 정도의 행위로 여겨졌으며, 그들의 생활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편정》 중 사회 중하층 계층 남성들에서 보이는 동성애는 그 성질이 다르다.

제3회 승려 六습은 절에 찾아오는 여 신도들을 훔쳐 간음하기를 즐겨하는 이로, 이가 여의치 않을 때는 동성애를 즐기기도 한다. 절에 여러 승려 제자들이 있었으나 맘에 들지 않아 밖에서 동성애자 桂名香을 데려와 같이 산다. 승려 六습과 桂名香은 모두 동성애를 즐기는 이로,

“둘은 마치 아교풀같이 붙어다니며 마치 시골의 부부들 같았으며, 앉으나 서나 서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한 바지를 입고 있는 것과 같았다.”<sup>35)</sup>

어느 날 절에 찾아 온 과부 신도 羅씨를 맘에 둔 승려 六습은 매괴이자 고모 蕭花嘴와 싸고 羅씨를 곤경에 빠트린 다음, 주변의 이목을 의식해 동성애자 桂名香을 羅씨와 혼례를 치르게 하고 첫날밤에 몰래 숨어 들어가 桂名香대신 과부 羅씨와 밤을 보내게 된다. 이 때 상황의 전말을 알게 된 羅씨가 울며 동성애자 桂名香에게 따지며 그녀는 승려에게 시집간 것이 아니니 桂名香을 따르겠다고 한다. 桂名香 또한 자신의 처지를 말하기를 그 또한 처음부터 동성애자가 아니었으며 부모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어 할 수 없이 승려 六습에게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sup>36)</sup> 즉,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동성애자가 된 경우다. 승려 六습 또한 본의

35) “兩個如膠似漆，恩義兼盡，真像鄉下夫妻，一步不離，行住坐臥，就如合穿褲子一般。”《一片情》제3회.  
36) “我父母雙亡，兄弟鮮有，只得倚仗和尙淒身，然而非我本意。”《一片情》제3회.

로 출가를 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승려가 된 경우이다. 따라서 세속의 눈을 피해 여신도들을 훔쳐 간음하거나 동성애를 즐기으로써 그 정욕을 풀고자 했다. 소설 중 남 동성애는 결코 그들이 선천적인 경향으로 동성애자가 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소설 중 동성애를 즐기는 남성들은 대부분 사회 비 주류층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 및 성 생활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그들이 정상적으로 정욕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기응변의 방편으로 혹은 그를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男寵들이 동성애를 즐기던 것이 결코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라는 사실은 청대 학자 紀昀 또한 인정하고 있다.

“여자가 음탕한 것은 정욕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지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變童)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원래는 이러한 심성이 없었으나 모두 어렸을 때 돈 있고 권세 있는 이들에게 위협을 받거나 유혹을 받은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sup>37)</sup>

《일편정》의 작가는 경제적 여건으로 부득이하게 男寵이 되어 다른 남성의 성적 노리개가 되거나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즐기던 부류들에게는 특별히 관대함을 보인다. 즉, 제3회 부모 형제 없이 떠돌던 桂名香은 처음부터 동성애자가 아니었으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승려 六合의 男寵이 되어, 그 또한 남동성애를 즐기게 되는 처지로 전락한다. 작가는 그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대해 양가규수 羅씨와 정식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부녀자의 값비싼으로 일반 부녀자들과 정상적인 혼인 생활 및 성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남성들이 동성애를 즐기는 것에 대해 《일편정》의 작가 뿐 아니라, 당시 문헌들을 통해서 볼 때, 사회 여론 또한 남 동성애 자체를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욕을 해소하지 못할 때,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임기응변의 방편으로써 수긍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경우가 결코 특별한 경우가

37) “凡女子淫佚，發乎情欲之自然，變童則本是無心，皆幼而受始，或勢劫利餌耳。”(清) 紀昀，《閱微草堂筆記·卷12》，(重慶：重慶出版社,1995), 276쪽.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沈德符의 《萬曆野獲編》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중국의 남 동성애자 중 부득이한 경우에서 비롯된 것이 여럿 된다. 안찰사의 신분으로 집을 떠나 있는 관리나, 간음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승려들이나, 객지의 객잔에 머무르는 가정교사들은 모두 이러한 방법을 임기응변의 방편으로 삼았으며 그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감옥에 오래 갇혀 있던 죄수들은 아침저녁 밥을 가져다 주는 이에게 반드시 짝 될 만한 이를 구해 주기를 원하고 또한 같은 부류와 상의한 뒤 감옥 안으로 넣어주기도 한다 ……서북 병졸들은 가난하여 밤을 즐길 만한 돈이 없어, 모두 군대 안에서 그들과 서로 어울리는 짝을 찾았다.”<sup>38)</sup>

“부녀자가 배에 타고 있으면 번번이 침몰하는 등의 재난을 당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배에 부녀자들을 태우는 것을 금했으므로 남 동성애로 이를 대체했다.”<sup>39)</sup>

당시 부녀자의 값비싼 몸으로 인해 정욕해소 문제에 있어 심각한 기갈을 느끼던 남성들은 단순히 동성애를 즐긴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같은 남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안건들은 명말 소설 《금병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금병매》에 보면 서문경의 사위 진경제는 장모로부터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가정 형편이 몰락해 마침내 길거리를 떠도는 거지로 전락하게 되고, 그 후 안공묘(晏公廟)의 임도사(任道師) 제자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거지소굴에서 한 번, 안공묘(晏公廟)의 수제자에게 또 한 번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sup>40)</sup> 그 일이 있던 후부터, 진경제는 아예 자신이 다른

38) “宇內男色有出於不得已者數家, 按院之身辭閨閣, 閩黎之律禁姦通, 塾師之客 羈館舍, 皆係託物比興, 見景生情, 理勢所不免, 又罪囚久繫狴犴, 稍給朝夕者, 必求 一人作偶, 亦有同類爲之講好, 送入監房……又西北戍卒, 貧無夜合之資, 每於隊伍中, 自相配合”, (明) 沈德符, 〈男色之靡〉《萬曆野獲編·卷24·風俗》, (北京: 中華書局, 1959), 622쪽.

39) “大海中禁婦人在師中, 有之輒遭覆溺, 故以男寵代之.” 주38, 〈萬曆野獲編補遺·卷三·風俗〉, 903쪽.

40) “初時兩頭睡, 便嫌經濟脚臭, 叫過一個枕頭上睡. 睡不多時, 又說他口氣噴著, 令他吊轉身子, 屁股貼著肚子. 那經濟推睡著, 不理他. 他把那話弄得硬硬的, 往他糞門裏一頂. 原來經濟在 冷鋪中, 被花子飛天鬼侯林兒弄過的……一面故意聲叫起來. 這金宗明恐怕老道師聽見, 連忙掩住他口.” 《金瓶梅》 제93회 참조.

남성들의 성적 노리개가 되기를 자칭하고 이를 자신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다. 즉, 자신의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경우인데 이는 《일편정》에서 보이는 남 동성애자들의 경우와 일치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다른 남성들을 대상으로 매춘행위를 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명 宣德연간에 조정에서 사대부들이 기녀들을 데리고 노는 것을 엄중히 금했으므로 京城 내에서 남성 배우 「小唱」들이 기존 기녀들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고, 萬曆연간에 이르러서는 사회전반에 광적으로 유행하게 된다.<sup>41)</sup> 이 「小唱」은 공연을 하던 직업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일반 기녀들이 매춘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대부를 비롯한 남성들의 성적 노리개가 되는 男寵이 되곤 했는데, 그 사회적 신분이 일반 기녀들보다 못했고 「相公」 혹은 「冤子」, 「冤崽子」 등으로 불리며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sup>42)</sup> 이들 또한 천성적으로 동성애 경향이 있었거나 즐기던 이들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남성 性을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일편정》 제 7회 중, 무위도식하며 떠도는 젊은이 溫柔는 자색이 뛰어난 谷新의 아내 勝兒를 유혹해 밤을 보내기를 궁리하는데, 사기꾼 건달 活無常은 이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젊은이 溫柔의 몸을 원한다. 이 때 溫柔가 말하기를 “여자와 잘 수만 있다면, 다른 남자의 성 노리개 상대가 되는 것쯤은 애석할 것도 없다.”<sup>43)</sup>라며 기꺼이 응한다. 여기서 젊은이 溫柔 또한 표면적으로 동성애를 즐기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녀자와의 성 관계를 위해서 거래조건으로 그의 남성 性을 저당 잡히고 부득이하게 동성애를 즐기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당시 남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 폭행을 하는 등의 사건들이 흔하게 발생하던 원인은 사회 상층계층 남성들의 異性愛에 대한 권태를 보충하고 또 다른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 동성애를 즐기던 것과는 달리, 사회 중하층 계층의 다수 남성들은 경제적 여건과 부녀자들의 값비싼으로

41) “金京師有小唱，專供縉紳酒席，蓋官伎既禁，不得不用之耳。…諸縉紳莫不盡力邀致，舉國若狂矣。”  
(明) 謝肇淛，《五雜俎》，卷之八，(瀋陽：遼寧教育出版社，2001)，151쪽.

42) 潘光文，《中國伶人血緣之研究》，(台北：商務印書館，1987)，236쪽.

43) “只要前件，那惜後庭。”《일편정》 제7회.

인해 혼인과 성 문제에 있어 큰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여성들을 통해 정욕을 해소하는 문제에 있어 부득이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임기응변으로 택해야 했던 방편 중의 하나였다. 비록 당시 사회 중하층 계층 남성들이 동성애를 즐기던 모든 원인이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일편정》 중, 대부분 간음하거나 동성애를 즐기던 남성들을 하나같이 성 문제에 있어 심한 기갈을 느끼는 호색한으로 묘사되고 있다. 제1회의 燕生은,

“부녀자를 보기만 하면 자색이 반반한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인물이 없는 여자도 보기만 하면 손에 넣으려고 한다.”<sup>44)</sup>

혹은 제3회 동성애를 즐기는 승려六승과 桂名香이,

“부녀자들만 보면 마치 개가 뜨거운 돼지 비계덩이를 본 듯 탐하면서도 또 두려워한다.”<sup>45)</sup>

필자는 위 예문들이 당시 소시민 남성들이 성에 대해 느끼던 답답하고 억눌린 듯한 그들만의 성 콤플렉스를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라 본다. 본능으로서의 정욕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사회 윤리가치관의 대립 속에서 성적으로 늘 기갈을 느끼면서 배회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리상태인 것이다.

#### 4. 외도한 아내를 둔 남편형상과 그들의 성 콤플렉스

《일편정》은 총14회 모두가 혼인 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점, 즉 아내의 외도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가는 이런 혼인생활에 있어서의 균열과 문제점을 표면적으로

44) “見了人家婦女，莫說姿容豔冶，就是有一、二分顏色的，都要刮他到手。”《일편정》 제1회.

45) “他兩人見了婦人，真是狗子見了熟脂油，又貪又怕。”《一片情》 제3회.

모두 여성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즉,

“늙은이는 젊은 여자를 들여 옆에 두어서는 안 된다. 남녀가 정욕을 느끼는 것은 결국 같으나 여자가 더 하다.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맺어져도 만약 잘 생기고 풍류가 있는 남자가 유혹을 하면 그에게 맘을 빼앗겨 버리는데, 하물며 늙은이와 젊은 여자가 맺어지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그녀를 기쁘게 하지 못하거나 그 정욕을 채워주지 못하면, 적게는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갈 것이며 크게는 악랄하고 독해 질 것이다. 이는 그 이치를 봐서 필연적 결과다.”<sup>46)</sup>

“부녀자들이 나이 50이 다 되어 가면 정욕에 관한 생각들도 마땅히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심해진다. 아내가 늙었다고 바람이 나지 않을 거라고 경계심을 놓으면 안 된다. 옛 사람들이 말한, ‘아내가 죽기 전까지 맘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맞다.”<sup>47)</sup>

“사람들은 첩을 들일 때, 그 비싼 값에도 아까워하지 않고 미모가 있는 여자를 사 들인다. 혹 처가 무서워 집에 데려가지 못하거나, 도중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경우가 생겨 데려가기 어려운 상황에 따로 다른 곳에 맡겨놓는데 이는 더 안 될 말이다. 첩이 되려고 마음을 먹은 여자가 처량함을 참고 적막함을 달래고 독수공방하며 삼중사덕을 지키려 하겠는가? 좋은 시절 젊은이가 유혹하기만 하면 담을 넘어 따라 가버리지 않는 여자가 없다.”<sup>48)</sup>

위와 같이, 작가는 소설 중 대부분의 혼인문제를 아내들의 지나친 정욕과 음탕함에 있다고 혹은 본성이 호색한 여성들이라고 질책한다. 표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녀들의 성적 본능을 동정하고 인정하는 듯하나, 여전히 그녀들의 정조관념의 부재를 죽음으로 응징한다. 그리고 소설 중 대부분은 여성들이 넘치는 정욕을 해소하지 못해 먼저 다른 남자를 유혹했다는 식으로 서술한다. 이와 같이,

46) “老人家，不可容留少艾在身邊，男情女戀，總是一般的，而女猶甚。以少配少 若有風流俊俏的勾引 還要被他奪了心去，而況以老配少，既不遂其歡心，又不飽其欲念，小則淫奔，大則虫毒，此理勢之必然。”《一片情》제1회.

47) “婦人年將半百，這念頭也該灰了，而反酷好……莫說我老婆老了，不偷漢子，便不提防，前人說得好：‘除死方休！’這話實實的。”《一片情》제6회.

48) “人娶妾，不惜重價購求，必然嬌姿美貌，或苦於妻狠不敢撤回，或在途中更欲他往，不便帶去，因而寄於他處，此見甚差，要想做妾的心腸，肯與你熬淒涼，甘寂寞，挨著孤衾剩枕，守著四德三從？一遇花朝月夕，有少年勾引，未有不躍牆相從的。”《一片情》제5회.

작가가 혼인과 성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정면 서술이 아니라 비껴가는 듯한, 표면적으로는 모든 문제를 부녀자들에게 돌리는 듯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 노신도 이러한 중국문학 표현 방식에 대해 예리하게 지적한 적이 있다.

“스페인 사람들은 연애에 대해 논할 때, 매일 여자 집의 창문 아래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우리 중국의 문인 학자들은 늘 여자가 먼저 와서 유혹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다.”<sup>49)</sup>

이러한 서술방식은 중국 봉건사회의 남성 특권문화에 의해 양성된 소위 말하는 중국 남성들 자존심의 간접적 표출방식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당시 중국 남성들의 성 문제에 있어 보이지 않는, 풀리지 않는 그들만의 콤플렉스를 엿볼 수 있다.

《일편정》 중 남성, 특히 아내가 외도를 한 남성들 대부분은 성 문제에 있어 심리적으로 열등감과 불안감 등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성 문제에 있어 콤플렉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성기와 성 능력에 대한 열등감과 강박관념이다. 둘째는, 아내의 배신에 대한 혹은 아내를 상품가치로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도적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첫 번째, 아내가 외도를 한 남성들의 자신의 성 능력에 대한 열등감은 대부분 그들의 연령과 관계가 있다. 즉, 그들의 나이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로 성 능력상 발생하는 열등감이다. 제1회 남 주인공 符成은 나이가 곧 60인 늙은이지만 대를 이을 자손을 위해 나이 어린 여자 新玉을 첩으로 들인다. 새 첩을 만족시키기 위해 符成은 신혼 한 달 내내 정욕을 불태우지만 오히려 병만 얻게 되고 침상에서 뜻과 같지 못하자 크게 낙심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 보상심리로 자신이 비록 성 능력은 이러하나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떠벌리며 위로하고자

49) “西班牙人講戀愛，就天天到女人窗下去唱歌。然而我們中國文人學子，總說女人先來引誘他。”

魯迅, 〈二心集·中華民國的新堂吉訶德們〉, 《魯迅全集·第四卷》, (北平:人民文學出版社, 1981), 352쪽.

《一片情》이 반영하는 晚明 남성의 性 콤플렉스 361

한다. 그러나 신옥은 “집에 천만금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성적으로 조금이라도 만족시켜주는 것이 더 낫다”<sup>50)</sup>는 말로 조소한다. 그 후, 符成은 첩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을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이 고해 바치자, 그 사실을 알고서도 오히려 그 또한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됐다 됐어, 이게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음. 그러나 이 일은 마치 분뇨구덩이와 같아서 피낼수록 냄새가 난다. 이 일은 내게도 방법이 있다”<sup>51)</sup>

라며 집안 식구들에게 함구하기를 명하고,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제8회 머리말에서 작가는,

“무릇 아내를 데리고 살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잘 따른다. 어떤 세 가지나? 첫째는 잘 먹여 살려야 하고, 둘째는 아내를 잘 관리해서 말을 잘 들도록 해야 하며, 셋째는 본전이 있어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셋 중에 큰 본전이 제일 중요한데 만약 이 본전이 아내를 행복시키지 못하면 시도 때도 없이 짜증을 내며 못살게 굴 것이며, 그 본전이 있어 즐겁게 해주면 곧 순하게 잘 따를 것이다”<sup>52)</sup>

여기서 말하는 큰 본전이란, 아내를 만족시킬 만큼의 성적 능력을 말한다. 소설 중 남성들은 대부분 아내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듯하다. 심지어 작가는 아내가 외도를 하고 이로 인해 남편이 남들로부터 우롱을 받는 것도 남편이 성적 능력이 없거나 아내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그것 또한 남편의 탓으로 돌린다. 또한 아내를 만족시킬 만한 성적 능력이 없음을 모든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재차 강조하고 처첩을 두려는 자는 더욱더 그 본전 (아내를 만족시킬 만한 성적 능력) 을 갖추

50) “家有千寶，不如入進分文” 《一片情》 제1회.

51) “罷! 罷! 這部我自不是，但此事如糞窖一般，越掏越臭，我自冇法” 《一片情》 제1회.

52) “人要跟老婆，須三事要俱全，那老婆自然跟得牢，那三件事? 一要養得他活；二要管得他落；三要冇本錢，中得他意。三事之中，大本錢尤要緊，若沒有本錢降伏他，莫說茶前飯後，都是鬧，有個大本錢撥動他，就順順溜溜的隨了去。” 《一片情》 제8회.

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賈空은 본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고, 仰恭은 본진도 없었을 뿐더러 아내도 잘 관리하지 못해 그런 창피함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말하건대 처첩을 두려는 자들은 그 세 가지를 다 잘 갖추어야 한다.”<sup>53)</sup>

이는 당시 많은 처첩을 거느리는 것이 부와 신분의 상징이던 사회배경 아래, 아내들과의 성관계의 균형이 혼인생활 중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던 사회 상층계층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부다처제의 가정에서 처첩들이 충애를 받고 받지 못하는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고 몰락하는 주요 원인이었으므로,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남성들은 그의 많은 처첩들을 성적으로 균등하게 만족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취지가 의학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房中書<sup>54)</sup>들이 명 말에 이르러서는 많은 처첩들과의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하려던 사회상층 남성들 사이에서 크게 환영을 받게 된다.

실제 명 말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일부 가훈들에서도 남성들의 성 능력이 성공적인 혼인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가훈은 오래된 중국의 전통 관습으로 가장들이 만년에 평생 체득한 소감을 자손들에게 훈도하기 위해 기록해 놓은 것들이다. 보통 이러한 가훈들은 단지 그 가정 내에서 소용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훈 중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정 성 생활에 대한 견해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대부분 아들이 혼인을 할 때 꺼내어 보여주는 것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당시 남성들의 성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53) “賈空有本錢不善用，故喪身； 仰恭沒本錢，不善照管，故招辱。我所以說畜妻妾者，那三者故全也。”  
《一片情》 제8회.

54) 房中書는 고대 부부 성생활을 지도하던 실용서적을 말하는데, 《漢書·藝文志》에서 가장 오래 전의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적들은 저술될 당시 극히 엄숙한 서적들로, 소일거리나 오락의 성질과는 전혀 무관했다. (荷) 高羅佩著, 李零·郭曉惠等譯, 《中國古代房內考；中國古代的性與生活》, (上海人民出版社, 1990), 7쪽.

“ (부녀자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은 ) 화장하고 몸단장을 하거나 비파를 타고 마작을 하는 것이다, 이 이외에는 유일하게 房事를 좋아하는데, 이는 현명한 가 장이라면 그것을 알고 모든 처첩들을 성적으로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큰 길 동 쪽의 한 사람, 건장한 젊은이는 처첩들이 밤낮 다투고 말을 듣지 않지만, 큰 길 서쪽 노랑머리에 곱사등이 노인네는 그 처첩들이 잘 받들어 모신다, 왜 그 런지 아느냐? 그것은 그가 房事의 묘함에 능통하여 (그 처첩들을 성적으로 잘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치를 모른다.”<sup>55)</sup>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들과는 달리, 당시 부녀자들은 평생을 집 안에 서 보내야 했다. 따라서 그녀들에게 있어서 성 생활은 생활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고, 그녀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젊고 잘 생긴 외모보다 그녀들을 성적으 로 만족시켜주는 것이 가정의 화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이 가훈의 의미는 《일편 정》 작가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로보아, 당시 남성들은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생활 의 여부를 판가름 하는 그들의 성적 능력의 여부에 관한 일종의 강박관념과 불안 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내가 배반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감과 누군가에게 빼 앗길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일편정》 중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남성들의 성 콤플렉스 중 하나다. 이러한 그들의 불안감은 거의 매 회에서 보이고 있다. 제 1회 늙은이 符成에게 시집을 간 新玉이 정욕을 참지 못해 젊은 남자와 정사를 벌이 다 집안 식구들에게 발각이 되고, 이를 알게 된 符成은 일이 발생한 후로는 新玉을 방에다 가두어 버리고 모든 결방들의 통로를 막고, 식구들을 집 안의 큰 길로만 다니게 했으며, 新玉에게 엄포하기를,

“오늘부터 한 발짝도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되며 정실 마님 방에서 생활하도 록 해라.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다시 살 생각은 말아라.”<sup>56)</sup>

55) “……首飾粉妝，弦素牙牌，以外所樂，止有房事歡心。是以世有賢主，務達其理，每御妻妾，必候彼快……街東有人，少壯魁岸，而妻妾晨夕橫爭不順也；街西黃髮區僂一叟，妻妾自竭以奉之，何也？謂此譜房中微旨，而彼不知也。”주52, 359쪽.

高羅佩는 이 가훈의 문장이 不雅한 것으로 보아 작자는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지주이거나 富商으로 추정한다.

56) “從今不許半步出門，只在娘房做些生活。若犯了我，你休想再生活。”《一片情》 제1회.

제2회의 賽康節는 짐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장님이다. 그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근방의 杜家에서 예쁘고 똑똑한 딸 羞月을 그 배필로 맺어 준다. 그러나 혼인을 한 뒤 賽康節는 짐치는 일을 뒷전으로 하고 하루에도 손님을 세워 두고 몇 번이고 집에 몰래 들어와 아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눈이 먼 남자의 아내치고 바람을 피우지 않는 여자가 없다”<sup>57)</sup>라는 풍문에 혹 그의 처가 그런 일을 벌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5회, 牛參將은 원래 북경 사람이나 南直隸에 參將의 직책을 받아 왔다가 북방 고향이 함락되어 황제의 명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북방으로 가게 되자 양주에서 사들인 첩을 데려갈 수가 없어 막우 白家의 집에 맡겨두고 가게 되는데, 이때 첩에게 시너 하나를 사서 시중들게 하고 늙은 하녀를 보내 집을 지키게 했으며 삼척동자 어린아이라도 합부로 집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방비를 시킨다. 제7회, 谷新은 똑똑하고 미모가 출중한 아내를 두고 장사를 하러 떠나게 되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며 부탁하기를,

“며느리가 어리고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엄격하게 집에서 생활하게 하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아들의 당부를 들은 모친은 며느리와 낮에도 늘 같이 다니고 밤에도 같이 자는 등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친정에서 사람이 데리러 와도 홀로 집 밖을 나서도록 놓아주지 않았다.<sup>58)</sup>

상술한 각 예를 통해서 우리는 《일편정》 중의 남성들, 특히 아내가 외도를 한 남성들에서 성 무능력 그리고 그로인한 아내의 배신에 대해 초조해 함과 불안해하는 등, 심각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상품가치로서의 존재로 도둑맞거나 뺏길 것에 대한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사회의 배금주의 가치관의 팽배와 이에 따른 부녀자들의 상품화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57) “瞎子的老婆，沒有個不養漢的” 《一片情》 제2회.

58) “媳婦幼小，不諳世情，嚴緊他在家做生活，不可閑戲游蕩。”母親聽兒囑咐，日則同行，夜則同睡，一步不離。即娘家來接，亦不放他獨自出門。《一片情》 제7회.

명 말에는 창녀들과 기루들이 도시문화의 발달과 동시에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謝肇淛의 《五雜俎》에 의하면,

“지금은 창녀들이 천하에 가득하다, 큰 도시에는 그 수가 몇 천 명이 넘고, 가난하고 궁핍한 벽지에도 곳곳에 창녀들이 있다…… 집에 거주하며 매춘을 하는 자도 있는데, 土妓라 하기도 하며, 속칭 私窠子라고도 불리며 그 수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sup>59)</sup>

이러한 대량의 창녀들은 대부분 당시 부녀자 매매시장에서 공급되던 것으로, 당시 부녀자 매매시장이 비록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시정에서는 공공연하게 매매되곤 했다. 특히 도시문화가 크게 발달한 강남지역에서는 부녀자들의 상품가치로 부모 혹은 남편에 의해서 팔려지는 부녀자들이 부지기수였다.

명청시대 통속소설 등에서 자주 보여 지는 揚州瘦馬는 일종의 인신매매시장의 주요 근원지가 된다. 養瘦馬라는 말은 당시 버려지는 고아나, 어린 여자아이들을 사들여 가무 등을 가르쳐 기루나 남의 집에 치나 칩, 심지어는 하녀로 판매하는 것으로, 일종의 돈벌이의 수단이었다. 그 돈벌이로써의 경제 가치로 당시 양주에서는 집집마다 養瘦馬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型世言》 제20회에 보면,

“양주에는 사람들 모두 瘦馬를 기른다, 부잣집이거나 가난한 집이거나 모두 몇몇 여자아이를 키우고 가무를 가르친 다음 비싼 가격에 판다.”<sup>60)</sup>

명말 張岱의 《陶庵夢憶》에 의하면, 당시 養瘦馬 (부녀자 매매) 업에 종사하던 이가 수 백 명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그 비율로 따지면 당시 揚州만 해도 매매되는 부녀자 수가 수천 명에 다다른다<sup>61)</sup>고 한다. 기루나 瘦馬의 대상으로 공급되어지는 엄청난 수의 부녀자들은 대부분 갑작스러운 기황이나 가난으로 부모에 의

59) “今時娼妓布滿天下, 其大都會之地動以千百計, 其它窮州僻邑在在有之……家居而賣奸者, 謂之土妓, 俗謂私窠子, 蓋不勝數矣.” (明) 謝肇淛, 《五雜俎·卷之八》,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2001), 163쪽.

60) “揚州地方, 人家都養瘦馬, 不論大家小戶, 都養幾個女兒, 教他吹彈歌舞, 索人高價.”

61) “揚州人日飲食於瘦馬之身者, 數十百人.” 張岱, 〈揚州瘦馬〉, 《陶庵夢憶·卷五》, (台北土城: 頂淵, 2004), 50쪽.

해서 팔려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에 반해 유괴 납치되어 온 경우도 상당수였다.

이와 같은 부녀자의 상품화 가치는 사회 상층계층 사이에서는 재산으로 처첩을 축적하는 것이 부의 상징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사회 각종 범죄의 미끼로 혹은 직접적인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즉 부녀자들을 유괴 납치하여 기루에 팔아 넘기거나 첩으로 파는 등 부녀자들과 관련된 사회 범죄들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 병폐들이 만연하게 된다.<sup>62)</sup> 특히, 명 중엽 이후 경제의 발달과 도시문화가 발달함과 동시에 도시에 유입된 많은 유민(游民)과 시정잡배(無賴)들은 생계를 위해서 부녀자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냥해야 하는 표적으로 삼았으므로 아내나 딸을 가진 집에서는 부녀자들이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철저히 방비해야 하는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 이러한 현상은 명말 각종 통속소설 중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였다.

당시 금전만능주의 가치관과 남녀 성비율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부녀자들은 누구나 착취해야 하는 고급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만연하던 사회에서, 대다수의 부녀자들은 사회 통치계층이나 상업으로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는 상인 등 사회 주류층 남성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부의 정도에 따라 부녀자를 얻을 수 있는 정도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편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중, 중하층 계층의 소시민이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편정》 중의 부녀자들도 당시 부녀자의 상품화 현상에 편승해서 부모에 의해 돈에 팔려 시집온 경우가 대다수이다. 즉, 제 1회의 첩 新玉은 그녀의 부모가 늙은이 符成의 재산이 많음을 탐해 어린 딸을 첩으로 판 경우이며, 제 2회의 첩을 치며 생계를 이어가는 장님 또한 그의 장사가 흥성함에 돈으로 짚고 아리따운 아내를 산 경우이다. 따라서, 소설 중 대다수 사회 중하층계층인 도시 소시민 남성

62) 명말 부녀자들에 관한 범죄행위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었는데 이는 명말 소설 《杜鵑新書》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다. 《杜鵑新書》는 총 88개의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당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24 종류의 다른 騙術류로 나뉘어 구분된 것 중, 부녀자편만 다룬 것이 따로 있을 뿐 아니라 각 범죄 행위 중 부녀자가 사건의 미끼로 혹은 범죄 대상으로 대량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들은 아내를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여겼고, 아내들의 젊음과 자색은 그들이 지니고 아껴야 하는 유일무이한 고급 사치품과 같은 존재였으므로 늘 도둑맞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 혹은 외도를 한 장면을 목격했을 시에도 소설 중 대부분의 남성은 그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 남성들을 그 자리에서 살해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죽게 만들으로써 발설한다. 그러나 그 아내에 대해서는 일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 1회 늙은 남편 符成은 젊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젊은이를 도끼로 살해해 버리지만 그의 젊은 첩은 집 밖 출입을 금하는 것으로 그 일을 처리 했으며, 제7회 멀리 행상을 나갔던 谷新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다른 남자와 놀아난 것을 알게 됨에도 오히려 그 어머니에게 “소문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제계도 생각이 있습니다.”<sup>63)</sup>라고 하고 결국 상대 남성을 공개적으로 살해해 버리나 또한 그 아내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제 10회 남 주인공 또한 아내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와 외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충격에 아연실색해 한 마디도 못 할 지경에 이르나, 오히려 큰 소리 치며 욕하는 아내를 앞에 두고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며 그 분을 삭이지 못해 결국은 강도를 사서 그 친구를 죽이게 만든다. 비록 작가는 이야기의 결말에 남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외도한 아내들을 대부분 병들어 죽거나 하는 등으로 사건을 끝맺지만, 당시 남존여비사상과 도덕관념으로 비취볼 때 아내들의 외도장면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애써 그 사실을 덮어 두려고 하거나 속으로 조용히 분노를 삭혀버리고 사건을 무마해 버리려는 듯한 태도는 특이하게 보이는 현상이다.

소설 총 14회 중, 아내가 유일하게 남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제14회 이다. 아내가 이발사와 외도를 하는 것을 목격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내와 상대 남성을 살해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작가는 이때 남편으로 하여금 오히려 관방으로부터 상금을 받게 함으로써 그 아내의 상품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했다. 필자는 이러한 사건서술의 표출은 당시 사회 중하층계층 남성들은 그 아내들이 윤리

63) “不可聲揚，我自冇法” 《一片情》 제7회.

도덕적인 개념으로보다 재산으로써의 가치가 더 컸으므로 비록 불륜을 저지르거나 남편의 체면을 상하게 해도 차마 죽일 수는 없었던 주요한 이유로 본다.

이와 같이, 명말 도시 중하층 시민계층의 남성들은 비록 아내가 있고 혼인을 했다고 해서 성 문제에 있어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없었다. 당시 상품화 가치로써 사회 하층 부녀자들의 정절관념의 약화로 아내들이 외도와 배신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늘 아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명말 “돈만 있으면 천하의 모든 여자들을 다 섭렵할 수도 있다”<sup>64)</sup> 혹은 “첩이 처보다 낮고, 창녀가 첩보다 낮고, 흠치는 여자가 창녀보다 낮고, 흠치지 못한 여자가 흠친 여자보다 낮다”<sup>65)</sup>는 당시 남성들 사이에 유행하던 비윤리적 가치관이 팽배하던 사회에서 아내는 고급 사치품으로 늘 사회 범죄의 표적이 되었으므로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늘 불안감과 초조함을 표출하는 등, 성 문제에 있어 결코 자유롭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5. 나가는 말

일반적으로 晚明의 경제발달과 더불어 사치와 방탕함으로 비롯된 성 탐닉문화가 성행하고 성 관련 산업과 상품들이 범람하던 사회 환경 속에서 생활하던 남성들은 당연히 성 방면의 각종 특권을 누릴 수 있고 혼인과 성 생활에 있어서도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일편정》의 각종 인물 형상들을 분석한 결과, 혼인 성생활에 있어서 자유자재하고 각종 특권을 누릴 수 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표면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구성원들이 모두 그 분위기에 편승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晚明 성 문화가 제공했던 각종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부류는 사회 상층계층 혹은 巨商등 일부 계층에 불과했다. 반면

64) 《金瓶梅》第一回.

65) “妻不如妾，妾不如妓，妓不如偷，偷不如偷不著。”(明) 江盈科，《雪濤小說·知足》，(上海：古籍，2000年)，49-50쪽.

《일편정》과 같이 사회 중하층계층 소시민 남성들은 혼인 성 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정욕해소를 위한 방편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염정소설의 주요 독자층의 신분과 당시 그들이 처한 사회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일편정》 중의 음란한 부녀자들의 형상묘사는 한편으로는 당시 하층계층의 부녀자들의 정절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당시 과거에 연이은 실패로 실의에 차 있던 문인학자들의 숨겨진 성 본능의 가장 원시적인 표출방식이자 상징이었다. 즉, 당시 금욕주의와 정절관념 등을 강조하는 중국 전통예교가 부녀자들을 나날이 수절녀와 순절녀와 같은 목석같은 존재로 몰아가고 있을 때, 경제적 곤궁함을 피할 수 없었던 대다수의 하층 문인학자들에게 있어서 음탕 음란한 부녀자들의 형상과 그녀들과 간음하는 등의 원색적인 이야기 줄거리들은 그들이 유학자로서의 가면 뒤에 억눌려 왔던 숨겨진 성 충동과 성 억압을 완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써의 표현이었으며, 또한 그들의 이성과 본능사이에서 느껴야 했던 성적 콤플렉스를 반영하고 있다.

晚明 시기에 성행하던 여 영아 살해 악습은 심각한 남녀 성비율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부녀자의 상품화 현상을 가속화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부녀자들은 착취하고 축척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충분한 경제능력이 없는 남성들에게는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중 사회 다수를 차지하던 중하층계층 남성들은 그들의 정욕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 아래, 부득이하게 동성애를 즐기고 혹은 간음을 하는 등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정욕을 발설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렵게 아내를 얻은 남성들 또한 당시 부녀자들의 값비싼과 희소성의 가치로 누군가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시시각각 초조해 하고 두려움을 느껴야 했으며, 가장으로서 충분한 성적 능력으로 아내를 만족시키는 것이 원만하고 성공적인 가정을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회 통념아래 자신의 성적 능력에 있어서 또한 무거운 부담감과 의무감을 느껴야만 했다.

晚明 사회가 전반적으로 사치와 성 향락주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대량의 성 관

런 산업들이 공전의 성황을 이루는 등 마치 전 사회가 성 향락 연희장을 방불케 하지만, 사회 다수를 차지하던 중하층 계층 남성들은 혼인 성 문제와 그들의 정욕 해소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으며 오히려 늘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말할 수 없는 자괴감 등을 안고 살아야했다. 그들은 晩明 사회 전체가 주취한 듯한 성 향락 연희장 주변을 배회할 뿐 결코 동참하고 즐길 수 있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이로 볼 때, 晩明 사회 성 문화를 방종과 성 탐닉 혹은 성 향락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했다고 규정짓는 일반적인 견해에 있어서 일정부분 곡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편정》을 통해서 본 晩明 사회 대다수를 차지했던 중하층 계층의 남성들은 성 문제에 있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성 문제는 향락의 일부분이 아니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 〈參考文獻〉

- 《一片情》清初刻本, 呼和浩特: 遠方, 1998.  
 張瀚, 《松窗夢語》, 上海: 古籍, 1986.  
 沈德符, 《萬曆野獲編》, 北京: 中華書局, 1959.  
 顧炎武, 《明季實錄》, 台北: 大中國, 1968.  
 顧炎武, 《顧亭林遺書十種》, 台北: 進學, 1969.  
 張岱, 《陶庵夢憶》, 台北土城: 頂淵, 2004.  
 陳繼儒, 《小窗幽記》, 台北土城: 頂淵, 2001.  
 葉盛, 《水東日記》, 北京: 中華書局, 2001.  
 謝肇淩, 《五雜俎》,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2001.  
 紀昀, 《閱微草堂筆記》, 重慶: 重慶出版社, 1995.  
 徐適端編, 《明實錄類纂》, 武漢: 武漢出版社, 1995.  
 吳敏倫, 《性論》, 台北: 台灣商務, 1990.  
 戴偉, 《中國婚姻性愛史》, 北京: 東方, 1992.  
 康正國, 《重審風月鑑: 性與中國古典文化學》, 台北: 麥田, 1996.  
 江曉原, 《性張力下的中國人》,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5.

- 高羅佩著·楊權譯,《秘戲圖考》,廣東人民出版社, 1992.
- 熊秉真·張壽安,《情欲明清;達情篇》,台北:麥田, 2004.
- 方志遠,《明代城市與市民文學》,北京:中華書局, 2004.
- 陳益源,《古典小說與情色文學》,台北:里仁, 2001.
- 鄭思禮,《中國性文化;一個千年不解之結》,台北:書林, 1996.
- 王強,《遮蔽的文明;性觀念與古中國文化》,台北:文津, 2003.
- 周新京,《古代性文學管窺》,台北:天坤, 1993.
- 李明軍,《禁忌與放縱;明清艷情小說文化研究》,濟南:齊魯書社, 2005.
- 李忠明,《17世紀中國通俗小說編年史》,合肥:安徽大學出版,2003.
- 卜正民著方駿·王秀麗·羅天佑譯,  
《縱樂的困惑;明朝的商業與文化解》,台北:聯經, 2004.
- 高羅佩著,李零·郭曉惠譯,《中國古代房內考;中國古代性與社會》,  
上海:上海人民出版社, 1990.
- 劉精誠·李祖德,《中國貨幣史》,台北:文津,1995.
- 謝國禎,《明代社會經濟史料選編》,福州:福建人民,2004.
- 潘光文,《中國俗人血緣之研究》,台北:商務印書館,1987.
- 劉曉東,〈科學危機與晚明士人社會的分化〉,《明清史》,2002年 第四期.
- 杜守華·吳曉明,〈試論明末清初艷情小說〉,《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1993年 第七期.
- 陳向春·丁戈,〈躲閃與放肆;傳統艷情文學的心態特徵〉,  
《社會科學輯刊》,1994年 第三期.
- 謝桃坊,〈論明清艷情小說的文化意義〉,《社會科學戰線》,1994年 第五期.
- 劉琦·郭長海,〈明清艷情小說的基本類型及其發展軌跡〉,  
《佳木斯師專學報》,1997年 第四期.
- 劉琦,〈明清艷情小說與女性主體意識的覺醒〉,《社會科學戰線》,1997年 第6期.
- 黃霖,〈試論《一片情》〉,《社會科學戰線》,1993年 第二期.
- 劉靜怡,《艷情中的人情;一片情研究》,台灣中央大學 中文所 碩士論文, 2001.
- 胡衍南,《食色交歡的文本;金瓶梅飲食文化與性愛文化研究》,  
台灣清華大學 中文所 博士論文, 2001.

### 《中文提要》

本文透过《一片情》试图分析明末男性—特别是都市中下层阶级男性之性情结。众所周知，明中叶以後由於中国商业经济的发达与都市文化的兴盛导致拜金思想的漫延，并且促进整个社会价值观与传统封建秩序的混乱。

随著社会上拜金思想的漫延，加速了妇女的商品化现象，而婚姻问题也跟著受其影响。也就是说，在当时缔结婚姻的机会以及拥有妇女的机会产生两极化现象：发迹变泰的富商和社会上层阶级男性，在合法的一夫多妻制度与将风流狎妓视为身分与财富的象徵的风气下，能充分享有发泄情欲的机会。但相反地，占有城市大多数人口的中下层男性，由於妇女的商品价值像高级奢侈品似的，因而缔结婚姻以及寻找配偶问题上陷入两难的情境。也就是说，在拥有妇女以及疏解情欲的管道上碰上问题。而且因当时流行溺死女婴儿的社会恶习导致严重的男女性别比率的不均衡现象，而加速当时社会中下层男性的性压抑，因此他们只能利用偷情或奸男风的管道发泄他们的情欲。此外，尽管好不容易透过婚姻之途享有疏解情欲的机会，然而由於当时下层妇女的贞节观念的弱化，以及社会纵欲主义风气的盛行，男性必须不断地提防妇女出轨，也因此这些中下层男性常因妇女的商品价值而感到其妇被盗的焦虑，并进而在性问题上产生不自由之感。《一片情》正好反映这种社会环境之下中下层阶级男性的婚姻问题与他们的性情结，因此透过分析本书中各角色可以进一步了解当时社会的非主流阶层的男性对性的焦虑。

关键词：《一片情》，艳情小说，明末，性，婚姻，妇女，纵欲主义，情结